

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코미디-멜로-액션’ 방송3사 수목극 막강 대결

MBC ‘7급 공무원’ 인기몰이에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KBS ‘아이리스2’ 도전장



‘7급 공무원’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수목극 시장에 ‘그 겨울, 바람이 분다’와 ‘아이리스2’가 도전장을 내민다. 이로써 코미디와 정통 멜로, 블록버스터 액션이 한관 호쾌한 승부를 펼치게 됐다.
복수극과 패륜이 판치는 안방극장에 이들 세 작품이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지 기대된다. 흥미롭게도 이들 세 작품은 원작 혹은 전작이 있다. 리메이크작이거나 후속작인 것. 이 때문에 앞선 작품들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셋 중 먼저 승기를 잡은 쪽은 지난 31일까 4회가 방송된 MBC ‘7급 공무원’. 차태현 주연의 ‘전우치’와 지성 주연의 ‘대풍수’를 따돌리고 수목극 시장의 왕좌를 차지했다. 대체로 후발주자들이 초반에는 경쟁작들의 아성에 놀리게 마련인데 ‘7급 공무원’은 종영을 앞둔 두 작품을 시작과 동시에 가볍게 제치며 시청률 1위에 올라섰다.
동명의 영화를 집필했던 천성민 작가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드라마로 옮긴 ‘7급 공무원’은 부작집 철부지 도련님과 가난한 농부의 딸이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 신입요원으로 나란히 입사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린다.
주연을 맡은 주원과 최강희의 톱톱 튀는 캐릭터 플레이와 둘의 귀여운 앙상블이 보는 이의 기분을 좋게 한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첩보를 소재로 극과 극의 캐릭터를 가진 남녀가 어이없이 뒤엉키는 이 소동극은 잔재미가 풍부한 코미디의 면모를 보이며 모처럼 안방극장에 상쾌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와 KBS ‘아이리스2’가 나란히 출발한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일본 드라마 ‘사랑따윈 필요 없어 여름’을 원작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앞서 영화 ‘사랑 따윈 필요 없어’로 한차례 리메이크된 바 있다.
이번 드라마에서는 한류스타 송혜교와 조인성이 호흡을 맞춘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은 도박사와 시력과 함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대기업 상속녀 간의 사랑을 그린다. 오수(조인성 분)는 돈을 목적으로 오영(송혜교)의 잃어버린 친오빠 행세를 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지만 이내 사랑에 빠진다.
독특한 느낌의 창작극을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구축해온 노희경 작가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리메이크작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EBS 프로그램 안내표. EBS1, EBS2, EBS3, EBS4, EBS5, EBS6, EBS7, EBS8, EBS9, EBS10, EBS11, EBS12. Includes program titles and time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프로그램 안내표. Includes program titles and times.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운세 안내표. Includes zodiac signs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Language learning table with 4 columns: Korean, Japanese, Chinese, and English. Includes phrases like 'No wonder it is so nice' and '好馬不吃回頭草'.